

# 약수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운영위원회위원장

유치원장



회의 일시 및 장소     2016년 2월 11일(목요일) 저녁 19시, 유치원 1층 빛반 교실

참석 위원     학부모위원(5명) - 정인옥, 김지영, 김담주, 홍이랑, 고서연  
                   교원위원(4명) - 양순실, 조문숙, 이미령, 김지윤

- 의사일정
1. 2016학년도 교육계획수립을 위한 학부모 의견조사 결과 보고
  2. 2016학년도 교육비 1만원 인상에 대한 자문
  3. 기타 안건
  4. 2015학년도 운영위원회 운영평가

- 간사: 지금부터 제2기 2회 약수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양순실원장: 어느 덧 2015학년도 운영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연휴와 관련하여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간사: 총10명의 위원 중 9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4가지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학년도 교육계획수립을 위한 학부모 의견조사 결과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가정통신문과 함께 배부된 자료 보셨는지요?**
- 양순실원장 : 결과보고를 보시고,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특별히 운영위에서 나누고 싶은 의견이 있으셨는지요?
- 김지영위원 : 결과보고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보다보니, 반복되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놀이터/복도에 CCTV설치, 오전간식에 대한 의견입니다.
- 양순실원장 : 결과보고에 있는 의견들은 1~2분의 의견들도 실었습니다.  
       CCTV의 경우,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관리하는 인력적인 부분, 제도나 법적인 부분, 교사나 유아들의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입니다.  
       못하겠다는 것은 아니나, 충분히 고려하고 어느 정도 수립이 되었을 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인옥위원 : 법제화되기 전에는 안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양순실원장 : 사실 학부모들의 의견도 다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원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세콰 등에 의뢰해 하게 될텐데, 월 관리비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 김지영위원 :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지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전체 학부모들에게 CCTV설치에 대한 의견조사를 해서 개인정보관리나 관리비 등에 관한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은 어떨까요? 학부모들이 원해서 하게 될 경우,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지 않을까요?
- 양순실원장 : 네. 교직원 회의를 통해 추후 학부모님들께 이에 대한 의견을 한 번 조사해 보는 것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 고서연위원: 오전 간식에 요구르트, 과일주스가 나오는 것은 바른 식습관지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분함량도 많아, 가정에서도 먹이지 않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나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전에도 제가 의견을 썼지만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 양순실원장: 오전 간식을 오전10시~10:30에 먹게 되는데, 점심식사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또한 그러다보니, 간식메뉴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도 합니다. 견학 시에는 간편하게 요구르트를 먹기도 하구요. 과일도 세척이나 손질시간을 고려할 때 한정적입니다.
- 고서연위원: 그냥 매일 우유를 주시거나, 과일도 딸기 한 개나 그렇게 주시면 안 되나요?
- 간사 : 반별로 우유에 대한 알레르기로 못 먹는 유아들이 1~2명씩은 꼭 있습니다. 딸기 한 개 정도를 간식으로 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먹다만 느낌이고, 안 먹은 이만 못할 듯 한데요. 그리고 학부모님께서 적어주신 의견이 반영이 되었기에 작년부터 주중에 과일이나 빵, 계절적 특징 또는 전통교육과 관련 간식메뉴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 김담주위원: 저도 간식에 변화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먹기도 하니까, 괜찮아요.
- 김지영위원: 저는 저희 아이가 워낙 잘 안 먹으니까, 원에서 먹는다면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서연위원은 당분 때문에 염려되는 것 같으시네요.
- 홍이랑위원: 저도 집에 요구르트나 주스를 먹이진 않는데, 유치원에서 먹는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 양순실원장: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금씩 변화하는 부분을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원 전체 운영을 함에 있어, 그 다양하고 많은 의견에 따라 그 때 그 때 달라지고 변하는 것을 매번 다 수용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기관장으로 나름의 철학과 중심을 가지고 운영하려는 부분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인옥위원: 종일반 차량 운행에 대한 의견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유치원의 답변을 보면 이해가 되기는 하나, 약수유치원에 입학할 희망하다가 종일반 차량문제로 입학할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 양순실원장: 종일반을 하고 싶은, 먼거리의 유아들 학부모님 입장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이긴 하지만, 기사님들께서 유치원차량운행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렵습니다. 이에 오후에는 학원차량으로도 운영을 하시는데, 종일반 2반에서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유아들의 수도 적고, 귀가 시간이 제각각이라 한 타임으로 몰아서 귀가차량을 운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김담주위원 : 혹시 영어교재 3년 주기로 바꾸신다고 했는데, 바뀌나요?
- 양순실원장 : 올해가 2년째라 교체는 없을 겁니다. 영어교재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요?
- 김담주위원 : 아니, 좋아서요. 키즈브라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도 잘 따라하고, 구성도 좋고, 온라인학습도 할 수 있구요.
- 정인옥위원: 저도 전에 했던 리틀스토리타운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학기초에 알려주신 키즈브라운 홈페이지에 코드번호 입력했더니, 가정에서도 활동할 수 있어 좋아요. 세이펜도 된답니다.
- 간사 : 그렇군요. 영어교재에 관한 의견 중 키즈브라운이 별로라고 하시는 분도 계셔서 염려했는데, 그런 활용도 가능하군요. 그런 정보는 공유하면 좋겠네요.

- 김지영위원: 이제 아이가 6세에서 7세 올라가는 시기라 한글과 수에 대해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혹시 한글과 수를 방과 후 특활이 아닌, 교육과정반에서 시간을 정해 해 주시면 안 될까요?
- 양순실원장: 7세가 되면 초등연계로 6하 원칙 주말지낸 이야기, 연속수쓰기, 100판, 간단한 수연산, 알림장, 독서통장 등의 다양한 한글과 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7세반 자녀들이 이번에 졸업하는 정인옥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정인옥위원: 저도 7세가 올라가는 시간에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1년을 지내고나니, 유치원교육만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사실 유치원에서 학습지를 해 줘도 안 해 줘도 가정에서 하는 사람들은 다 하기 마련이죠.
- 간사: 실제로 본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진학시킨 학부모님들에게 들려오는 얘기 대부분은 아이들 공부와 학교생활에 문제없이 잘 적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3월의 7세와 지금의 7세는 표현과 발달에 있어 담임교사들도 놀랄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 양순실원장: 별도로 한글과 수 지도 시간이 있다면, 그건 그냥 학습처럼 되기 쉽습니다. 실제 7세반 학부모님 중 아이에게 한글과 수 지도하기를 원하는 건 아니시라는 학부모님도 계십니다.
- 간사: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혹시 또 다른 나눌 의견 있으신지요?

**< 더 이상의 의견이 없어 의사1 마무리 >**

- 간사: **다음은 2016학년도 교육비 1만원인상에 대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순실원장: 인상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난 11월 진급확인서를 받기 전에 미리 공지는 해 드렸는데, 이에 대해 주변에서 의견이 있으셨나요?
- 정인옥위원: 그에 대한 다른 의견들은 못 들었습니다.
- 홍이랑위원: 물가상승, 인건비 등으로 매년 오를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 양순실원장: 사실 교육청에서 유치원교육비 안정화 정책으로 1%에 한해서 인상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별로 점검도 실시될 예정인데, 1%인상할 수 있다면 월1,900원정도입니다. 그런데 교사경력에 따른 호봉은 전년대비 3.4%가 올랐습니다. 유아학비 지원금은 22만원으로 몇 년째 동결이구요. 사실 현실과는 다른 정책으로 당황스럽습니다. 질적인 유치원교육을 위해서는 경력교사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에게 대가가 없이 봉사를 강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아학비지원액은 동결 그리고 1%인상만으로는 인건비, 교육제반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아까 말씀드린 CCTV관리비를 학부모부담금으로 산정해 넣을 경우, 인상액이 올라가니, 당연히 %가 또 올라가게 되는 것이라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이 어려운 것입니다.
- 간사: 사실 누리과정 유아학비가 처음 시작될 때 단계적으로 30만원까지 증액되어 지원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사실 원래대로 되었을 경우, 학부모부담금은 오히려 줄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2만원 계속 동결이다 보니, 물가와 인건비는 오르고 원비를 동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 정인옥위원: 사실 그런 자세한 부분들은 부모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 일이 있군요. 경력에 따른 인건비상승은 이해하는데, 그렇게 1%묶어 놓은 것이 좀 그렇네요.
- 양순실원장 : 2016학년도 교육비 월1만원 인상에 대해 위원님들 모두 동의하시는지요?

**< 전원 이의 없이 의사2 2016학년도 교육비 월1만원 인상에 동의함. >**

○ 간사: 기타 안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정인옥위원: 이젠 카페 쪽지로 온 의견인데, 유치원 화장실 세면대 청결과 물비누 사용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비누를 여러 명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보통은 다수가 쓰는 경우, 물비누를 사용하기 때문에 나온인 것 같습니다.

○ 양순실원장: 화장실을 리모델링할 때 유아들의 인원수를 고려하여 3개였던 세면대를 4개로 늘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판에 기계로 구멍을 만들 때, 거뭇거뭇한 자국이 나서 그것이 물때처럼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작은 조리사님께서 청결하게 유지, 관리는 해 주시고 계십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물비누사용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 김담주위원: 발표회DVD가 컴퓨터전용이라 TV로 볼 수 없는 점이 아쉬워요.

○ 정인옥위원: ipTV면 유클라우드로 볼 수 있어요.

○ 김지영위원: 컴퓨터에서 CD파일을 USB에 담아 TV에 꽂으면 볼 수 있어요.

○ 간사: 화질 때문에 HD로 제작을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TV로 볼 수 있는 방법을 학부모카페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홍이랑위원: 방학과제물을 좀 줄이면 안 될까요? 다소 많은 것 같고, 학부모의 손이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에 김지영위원, 고서연위원 동의>

○ 양순실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느끼셨나요?

○ 김담주위원: 저는 방학과제물을 하며 아이랑 방학을 보내는 방법으로 활용을 했어요.

○ 고서연위원: 추천도서, 가볼 만한 곳 추천 등을 참 유용한데, 과제는 다소 많은 것 같아요.

○ 홍이랑위원: 방학과제물 수를 줄이거나, 아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로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김담주위원: 큰 딸 초등학교에서는 방학과제를 필수와 선택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 양순실원장: 사실 방학과제물도 기본에 교재로 나온 제품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자료를 찾고 일일이 작업해서 누리과정 영역별로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군요. 그럼 학기 중에 활동하는 동화나라이야기 같은 것은 뺄까요?

○ 홍이랑위원: 그게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건데요...

○ 이미령위원: 사실 과제물을 다해 오지 않아도, 해 온 것 중에 자기가 소개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만 소개하게 합니다. 잘해야 되고, 그래서 해줘야 하는 부담, 다해야 하는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 홍이랑위원: 그런데 아이 스스로가 다른 아이가 해 온 것과 자기 것을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아요.

○ 김지윤위원: 유치원에서 가정에 나가는 과제들을 부담으로 느끼시기 보다는 평소에 어떻게 지도해야 하나요? 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신 학부모님들께 방학동안 유아들과 이야기, 생각을 나누고,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 양순실원장: 방학과제물이 하나의 안내서이기도 하니, 안 나갈 수는 없고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사회의를 통해 다음 방학과제물을 어떻게 제시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겠네요.

< 더 이상의 의견이 없어 의사3 마무리 >

- 양순실원장: 2015학년도 운영위원회를 마무리하며,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합니다.
- 정인옥위원: 다수의 의견을 대표하는 위원들인 만큼 몇 번 안 되는 회의에 빠지는 분 없이 모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난 해 메르스와 관련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 기본적으로 학기별 2번씩 4번의 회의가 지켜졌으면 합니다.
- 김담주위원: 학부모와 유치원의 다리역할을 충실히 하고 싶었으나,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카페도 위원장님과 제가 주로 하는데, 이용하는 분들도 한정되어 있는 것 같구요.
- 김지영위원: 의견을 나누다 보면, 서로 곤란하거나 난감한 경우도 있는데, 사실 원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운영하시는 부분이 좋기도 합니다.
- 고서연위원: 저도 몇 가지 빼고는 약수유치원에 만족하며 보냈어요.
- 홍이랑위원: 학부모위원을 하며, 유치원의 이야기도 들으며, 이런 건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저럴 수도 있었겠구나 하며 유치원의 입장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중간역할을 잘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미령위원: 위원회를 하면서 부모님들의 입장과 마음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김지윤위원: 학부모님들과 가까워지는 느낌도 들고, 아이들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간사: 운영위원회에서 나누는 의견들로 인해 학부모와 유치원 간의 소통과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실제 간식에 과일이나 빵, 전통교육이나 계절관련 음식들이 들어가게 되었고, 가방과 체육복이 새롭게 교체되었고, 통신문에 연령별 교육안 주제와 진행기간이 나가고, 학부모카페가 만들어져 좀 더 정보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두 위원님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 양순실원장 :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다양하고 발전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이를 키웠던 때와 세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학부모위원들을 통해 현재 부모들의 의견, 생각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의 입장, 의견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 간사 : 많은 의견을 나누는 사이 벌써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더 의견 없으십니까?
- 양순실원장 : 이번에 마무리하시는 위원님들, 또 연임하시게 되는 위원님들 모두 감사드리며, 저 또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 그럼, 시간이 많이 늦은 관계로 여기까지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3월에 2기 운영위 위원 보궐선거, 위원회 구성 등으로 다시 뵈겠습니다.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기 록 자 : 조문숙(인)